6호

하남시의회 소식지

2012.11.5.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 TEL 031)793-2363 | FAX 031) 793-2365 | www.hanamcitycounci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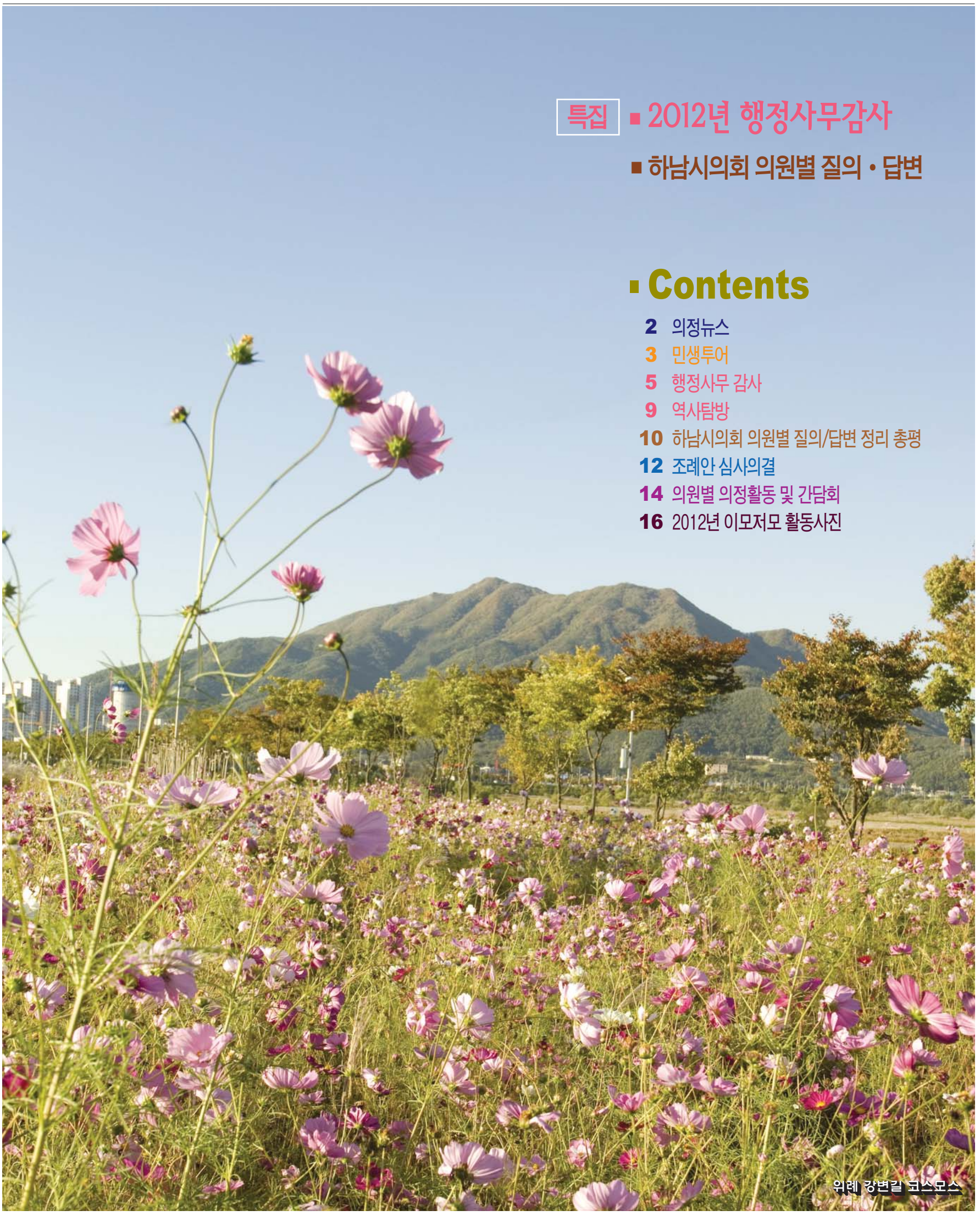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의회

특집 ■ 2012년 행정사무감사

■ 하남시의회 의원별 질의 • 답변

Contents

2 의정뉴스
3 민생투어
5 행정사무 감사
9 역사탐방
10 하남시의회 의원별 질의/답변 정리 총평
12 조례안 심사의결
14 의원별 의정활동 및 간담회
16 2012년 이모저모 활동사진



위례 강변길 코스모스

“ 하남시의회, 보금자리에 하남업체 참여 확대 요청 ”

LH에 지역 생산 · 판매 자재 구매 및 주민 우선고용 등 촉구

하남시의회(의장 오수봉)는 7월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사, 감일, 감북 보금자리, 위례신도시의 개발 사업에 지역주민 고용 확대와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공문을 통해 ‘하남시는 3곳의 보금자리 사업지구와 1곳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 전역이 대단위 공사장화 되고 있다’ 고 전제하고 ‘이같은 대형 공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나 주민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다’ 고 협조를 촉구한 이유를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현재 수용지구 주민들의 개인재산 저평가 보상으로 인한 손해, 철거 등으로 인한 소음, 먼지, 교통 불편 등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LH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업계나 시민들은 꾸준히 하남시의회에 면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하남시의회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LH에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지역 업체 참여’ 의 뜻을 전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남시의회는 지역 업체의 참여와 생산품 및 판매되는 자재를 구매하고 주민 우선고용에 노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조례의 권고사항 이행과 주민정서 등을 감안해 주역주민의 고용과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나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시의원 전원의 명의로 요청했다.





하남시의회, 2013년도 의정비 만장일치 동결

서민경제 어려움 동참 ·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 감안

하남시의회(의장 오수봉)는 8월31일 주례 회의를 열고 2013년 하남시의원 만장일치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하남시의회의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결정에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한 몫했다.

2013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으로 의정비 심의를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어져, 이 과정에 필요한 예산, 시간, 행정력 등도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어 체감경기 역시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의정비를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장, 택시 몰고 길거리로

택시기사와 서민 어려움 체험하며 민생 안정 정책 고심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장이 민생탐방을 위해 9월 10일 직접 택시의 핸들을 잡고 길거리로 나섰다.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장의 이번 택시체험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를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가량 하남시 곳곳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택시 민생탐방을 마친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장은 "높은 유류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어려움과 택시기사들의 고단한 하루를 경험했다"며 "운행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직접 토해내는 현장의 소리를 청취,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수봉 의장, 택시기사체험

●●● 하남시의회 여성의원 4인방, 덕풍시장에서 판매체험

주변 대형마트 입점 · 불경기 등 전통시장 활성화 모색

하남시의회 4명의 여성의원(이현심 · 홍미라 · 방미숙 · 황숙희)이 9월 14일 하남의 전통 시장 중의 하나인 덕풍시장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물품판매를 도왔다.

이날 4명의 여성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일, 떡, 반찬, 채소, 계란가게 등을 중심으로 직접 물품을 판매하며, 상인들의 고충을 체험했다. 여성의원들은 최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물가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여성의원들은 특히 추석 대목을 맞고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껑충 뛴 물가로 인해 가벼워진 장바구니를 체험하며, 이같은 어려움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생탐방 릴레이'의 하나로 이번 전통시장 판매 체험에 나섰다.

15년째 덕풍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은 좌판 위로 쉼 없이 손길을 움직이며 "우리 시장에 전용 주차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해 줘 감사하다"며, "덕풍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민생탐방 릴레이 전통시장'에 참여한 4명의 여성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소비자의 장바구니가 작년보다 가벼워지고, 주변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시장의 매출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전통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덕풍전통시장

●●● 윤재군 · 김승용 하남시의원, 독거노인 등 탐방

방문간호사와 함께 취약가구 방문‥소외계층 실태 살펴

윤재군 · 김승용 하남시의회 의원이 9월 18일 하남시보건소가 시행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에 참여,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로 주민생활 체험에 나섰다.

윤재군 · 김승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의회가 실시하는 민생탐방 릴레이의 하나로 보건소 방문보건팀 간호사들과 함께 취약가구, 경로당 등을 탐방했다. 윤재군 · 김승용 하남시의원은 이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경로당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불편사항 청취를 위해 신장2동, 감북동 지역을 차례로 탐방하며 현장에서 취약가구의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다.

하남시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맡아 운영하고 있다. 방문간호사 6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총 8명이 하남시민 중 등록관리 대상자 4446가구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간호,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방문보건팀은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2004년부터 8년째 실시하고 있다.

민생탐방 릴레이 도중 담당업무가 힘들지 않느냐는 윤재군 시의원의 질문에 유선희 간호사는 "관리 대상가구의 수에 비하면 부족한 인력이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간호사의 방문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 대상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주변의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독거노인 방문

민생탐방 릴레이를 마친 윤재군 · 김승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사회발전의 주역이었던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에 국가가 힘써야 할 시대가 됐다"며 "모든 대상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시의원은 "의회에서도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민생탐방 소감을 밝혔다.

●●● 하남시의회 여성의원 4인방, 빨래 세탁 봉사

장애인복지회 운영 중증장애인 무료빨래방에서 구슬땀

덕풍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던 하남시의회 여성의원 4인방(이현심 · 홍미라 · 방미숙 · 황숙희)은 9월 24일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 중인 사랑의 무료빨래방에서 민생탐방을 실시했다.

사랑의 무료빨래방은 2006년 3월, 지역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개인위생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편부모 가정을 포함해 월 평균 100여세대가 꾸준히 이용 중이다.

사랑의 무료빨래방은 수혜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거, 세탁, 배달까지 차량으로 논스톱으로 처리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회 무료 빨래방 팀장은 "오전 7시만 넘으면 방문해 달라는 전화가 끊임없이 울린다"며 "그런데도 바쁜 일과를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수년 째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하남시의회 여성의원 4인방은 오전 10시부터 10여가구를 방문, 묶은 빨래를 수거해 세탁을 마치고 햇빛에 뽀송뽀송하게 마른 빨래를 다시 오후에 배달하면서 민생탐방을 마쳤다.

여성의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이불빨래 등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배달하는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야 기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무료빨래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방문

●●● 오수봉 · 홍미라 · 김승용 · 방미숙 · 황숙희, 장애인시설 봉사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 찾아 주변청결 산책 등 따뜻한 정 나눠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장, 홍미라 · 김승용 · 방미숙 · 황숙희 하남시의회 의원 등 5명은 10월 8일 장애인 복지시설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을 찾아 2012년도 민생탐방 릴레이의 대단원을 마쳤다.

이날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을 찾은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5명의 하남시의원은 오전 10시부터 고추밭 정리를 시작했다. 오전 일과를 마친 시의원들은 오후 들어 14명의 시설 입소자들과 함께 따뜻한 가을 햇볕을 받으며 미사리조정경기장을 함께 산책했다. 산책은 신체장애로 인해 평소 활동량이 많지 않아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여건에 있는 입소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오수봉 하남시의장 등 하남시의원 5명은 "저렴하면서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러한 시설을 늘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며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테레사 원장수녀)은 1985년 9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설립, 1988년 하남시로 이전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가를 득하고 현재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15명 정원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이다.

하남시의회가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민생탐방 릴레이는 △오수봉 하남시의장의 택시체험(9월 10일)을 시작으로 △하남시의회 여성의원 4인방의 덕풍시장 상품판매 참여(9월 14일) △윤재군 · 김승용 시의원의 방문보건사업 체험(9월 18일) △하남시의회 여성의원 4인방의 무료 빨래방(9월 24일) △오수봉 · 홍미라 · 김승용 · 방미숙 · 황숙희 시의원의 장애인복지시설 탐방(10월 8일)로 일정을 마쳤다.

하남시의회는 2013년도에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더 적극적인 민생탐방 릴레이로 시민 곁으로 다가설 예정이다.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

201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42건)

□ 공통(1건)

1.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대책 강구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나 소요예산을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예측 ·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기획예산담당관(3건)

1. 소송수행 승소율 제고

최근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패소로 인한 손배액이 1억4500만원으로 이는 예산낭비 사례 및 행정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바, 사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은 기부채납 및 사용승락서 등 과거 관련서류 확인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 사건 배당이 변호사별로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건배당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바람.

2. 예비비 집행 철저

2011년 하반기 예비비 집행내역 중 수중모터 등 구입, 장비임차료,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지원예산이지만,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한 계획에 의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3. 재정 투 • 융자사업 심사 철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정투 · 융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덕풍동 빗물배수 펌프장 설치사업은 2011년 12월15일 재정투 · 융자사업 심사를 하였음에도 2012년 본예산에 32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제2회 추경예산에 당초 사업비의 약 46%인 14억7800만원이 증액된 부족 사업비를 요구하는 등 재정투 · 융자 사업 심사가 심도 있게 운용되지 못한 점도 있는바 향후 재정투 · 융자사업 심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공보감사담당관(1건)

1.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징계 처분

그린벨트 해제로 시 전체면적에서 그린벨트 지역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 면적의 약 77.5%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업무의 복잡 · 다양성과 다수 민원으로 인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징계처분이 타 부서에 비해 많은바,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및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2건)

1.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방안 강구

장애인 공무원 채용 인원이 현행 법률의 의무고용비율에 부합하고 있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남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에 시장은 시 산하 공무원 채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속히 장애인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2.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민간인 참여 방안 강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시 심사위원들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바, 여행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포함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고 무기계약자나 비정규직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무원국외여행 귀국보고를 많은 시민들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의회처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정보통신과(1건)

1. 방범용 CCTV 조회 관리 철저

방범용 CCTV 범죄활용 조회 실적 중 497건을 조회하여 34명의 범인을 검거한 것은 CCTV 조회건수 대비 범인검거 실적이 저조하며, 무분별한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우려되고, 범인 검거를 위하여 방법용 CCTV 조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사생활 침해 여지도 항상 존재하는바 경찰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조회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종합민원과(1건)

1. 공무원 친절교육 내실 있게 추진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는 대부분 사소한 공무원의 행동에서 비롯되고 있고 또한 반복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문제이며, 특히 주민센터나 시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불친절은 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며, 또한 인허가 공무원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민원응대 자세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공무원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불친절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세무과(1건)

1. 체납액 일소 대책 강구

보금자리 지정 등 지역적 여건과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시의 체납율이 7%를 상회하는 것은 체납율이 높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세의 확장속도에 맞춰서 재정여건이 못 따라 가면 시 발전에 필요한 대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고액 및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람.

□ 회계과(2건)

1.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방안 강구

지역건설업체의 도급율을 높이고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을 지원하고자「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역업체 참여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 시행하는 등 각종 공사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덕풍2동 구청사 활용방안 강구

덕풍2동 구청사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촉구하였으나 청사를 방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여 2심 판결에서도 일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된바 판결문이 도착하면 패소원인 분석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상급심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바라며, 도시계획결정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 문화체육과(2건)

1. 생활체육회 직원 처우 개선 검토

생활체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증가로 하남시 생활체육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생활체육회 직원들의 업무가 주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우는 업무량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사기 저하

6 행정사무감사

의 요인도 되므로,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고 업무량에 합당한 수준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복지 증진 측면에서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만큼 시민들이 장애인 체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주민생활지원과(2건)

1. 사회 취약계층 조사 철저

2012년도 사회적 취약계층 조사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바, 조사대상 누락 등 면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최근 경기 침체로 우리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 감독 철저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4억9000만원, 법인전입금 7500만원, 후원금 3억1000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는바, 좋은 뜻으로 후원금을 기탁한 분의 뜻을 담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시 예산 지원에 비해 법인전입금이 적다고 판단되니 법인전입금 증액방안과 정서적 · 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치료사 증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사회복지과(2건)

1.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우리시도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도 같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내에서 언어의 장벽 및 문화의 차이로 우리사회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격고 있고, 일부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음, 의회에서 베트남 호치민 한인회를 방문하였을 때도 한인회 분들이 베트남 신부 남편에 대한 베트남 문화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던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행사 등 프로그램을 강구하기 바람.

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철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대형할인점 및 금융기관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일반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바,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을 넓게 만드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 장애인주차구획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지도 ·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농업정책과(1건)

1. 상자텃밭 보급 사업 추진 철저

누구나 유기농채소야채를 직접 키워 먹음으로서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도 지키고자 도시농사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 농업 교육은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상자텃밭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 집에 보급함으로서 교육을 수료한 주부들의 민원이 있고 또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것이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는바, 향후 교육수료자에게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등 사업 추진 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기 바람.

□ 기업지원과(1건)

1.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덕풍시장은 사유지 일부 미승락 및 도로 일부의 재개발지구 지정 등의 사유로 탈락해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있는바, 열악한 시 재정상황 및 중소기업청 지원대상사업임을 감안하여 시 자체 지원계획 보다는 미승락자에 대한 설득 등 중기청에 내년 사업으로 재신청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환경보호과(1건)

1. 의제21 관련 예산 적정 편성

환경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환경하남의제21 추진협의회 예산은 인근 시군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
규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자원관리과(1건)

1.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CCVT 운영 철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취약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23대가 고장 후 방치되어 예산 낭비 사례이며, 전기요금 및 통신료 과다 발생사유로 설치한 31대중 8대만 가동하고 있는바, 아직도 무단투기 취약지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CCTV 정상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건축과(1건)

1. 구도심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 철저

노후 ·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구도심 도시재개발 사업이 찬성 · 반대 주민간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재개발 관련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고 주민들 또한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바,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진척이 없을시 일몰제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행태는 부적절한다고 판단되는바 찬반주민간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건설과(2건)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각종 시 발주 공사시 지역업체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특히 미사보금자리 등 대형 건설사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나 지역주민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실정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바 지역주민 고용 및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팔당대교 자살 방지 대책 추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중 가장 높고 더욱이 경기침체 및 가정불화로 자살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팔당대교에서도 매년 1명 정도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바 자살예방안내문 및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 재난관리과(1건)

1.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철저

7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현장









▲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육성을 들으며 직접 발로 뛰면서 행정감사를
보다 정확하고 발빠르게 실천하는
하남시의회의원들의 활동사진

해가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피해복구 할 수 있는 제도로, 기상 이변이 많은 기후상황에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모든 저소득 주거 빈곤층과 일반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재난피해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교통행정과(2건)

1. 버스승강장 청결 등 유지관리 철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이 주변의 쓰레기와 불법 부착물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쾌해 하고 있는바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청소 및 각종 홍보 불법 부착물을 정비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버스승강장 청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상일동역 연계 노선버스 협의

풍산지구에서 상일동역까지 도보로 10분 정도이나 버스 이용시 30분 넘게 소요되며, 노선버스가 없어 갈아타는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서울시가 환승정책을 근거로 노선협의를 안 해주고 있지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일동역 연계 노선버스 개설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 공원녹지과(1건)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대책 강구

최근 2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 629건에 비해 원상복구는 93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GB내 불법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등 사전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발생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완전한 원상복구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8 행정사무감사

□ 상수도과(1건)

1. 정수장 증설 방안 검토

하남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 입주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환경부에서는 암사정수장 수돗물 공급을 권고하고 있는바, 수돗물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저렴하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수장 증설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도시개발과(2건)

1. 미사보금자리지구사업 추진 철저

미사보금자리 입주민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선동에 약 6000여평의 열원시설을 계획하였다가 강동구가 반대하자 풍산동에 약 1만3000여평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동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변경과정에 LH공사는 당사자인 하남시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여 갈등을 조장하였고, 도시미관저해 및 환경오염 우려로 시민들의 이전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한 현안사업임에도, 관련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소홀했고 또한 의회에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아 대응과정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수산물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에 대한 LH공사와 시의 입장 차이로 이주대책이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2. 지역현안 1부지 사업 조속 추진

공해공장 이전부지에 도시지원시설 및 주택지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 1부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2008년 5월 2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해당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피해와 생활불편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백지화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교육지원과(1건)

1. 캠프콜번 부지 활용계획 수립

2007년 11월 6일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고, 최근 인천시가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보도 등 중앙대 하남캠퍼스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발견되었는바, 캠프콜번 공여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환경시설과(1건)

1. 환경기초시설 주민협의회 운영 내실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성한 주민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이 상시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방대책 마련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보건소(2건)

1.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방안 강구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 발생 4분~6분이 지나면 치명적인 뇌 손상이 발생하지만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확률을 90%까지 높일 수 있어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응급처치임에도 우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은 시 인구수에 비하면 1%미만으로 저조하고, 서구화된 생활방식과 고령화로 인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질환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심정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소방서와 협력하여 초 · 중 · 고등학교와 많은 시민에게도 실시해 내 가족과 이웃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학교 앞 분식점등 위생 점검 철저

학교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경기도의 단속 결과 떡복이, 김밥, 어묵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우리시도 위반사례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사례는 영업주의 위생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영업주의 의식 전환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 시립도서관(1건)

1. 외국인 도서관 이용 활성화 홍보 강화

현재 취업 및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외국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한 외국인들이 읽고 싶은 책을 조사하여 외국서적을 비치하는 등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 도시개발공사(4건)

1.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불성실

요구한 감사자료 중 (주) 하남마블링시티(AMC) 관련 감사자료를 민간주주참여사의 반대 이유로 감사 당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아 원활한 감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수감태도가 불성실하였고, 지역현안 1부지 사업 진척이 부진함에도 운영경비 5억3100만원(월 5318만원) 등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향후 운영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람.

2. 아이테코 정전사태 및 부실시공 대책 강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 외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58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아이테코는 지난 집중호우시 누수로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약 20억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곳에 부실시공이 발견되었는바, 도개공에서는 아이테코 주요 문제점에 대한 특별조사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하자 및 부실시공과 입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대주주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대주주와 시행사가 아이테코의 총체적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지역연안 2부지 사업 추진 철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공급을 하여 진행하는 현안2부지 사업에 대하여 KPG에서 터브만아시아로 주주변동이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주주변경 사항을 적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추진에 소홀하였는바,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마루공원 장례용품 판매 수수요율 인하 및 증축방안 검토

시민에게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루공원의 장례용품 판매 수수료율이 인근 시군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는 이용 시민에게 전가되는바,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미사지구 입주 등 우리시 인구 규모가 35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장례 수요 증가에 따른 증축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문화예술회관(1건)

1.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연 기획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였지만 일부 공연은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많은 적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김영임소리효대공연 등은 공연기획 지출비용이 전체 예산대비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바,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기획하고, 부족한 창작공연을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회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연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

역사 탐방

하남동사지



일반현황

- 문화재명 : 하남동사지
- 종　　별 : 사적 제352호
- 소 재 지 : 하남시 춘궁동 산41번지 일대
- 지 정 일 : 1991.08.24



중부고속도로 하남인터체인지에서 남쪽으로 2.5km 지점의 금암산(金岩山:322m)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하남동사지에는 보물 제13호 춘궁리삼층석탑과 보물 제12호 춘궁리 오층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이 1988년 4~7월에 발굴 조사한 결과 '桐寺'라는 이름의 명문(銘文)기와가 출토되어 '광주동사(廣州桐寺)'로 추정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 5층석탑과, 3층석탑의 건립시기가 통일신라말 이거나 고려초기의 양식을 띠고 있어 근래에까지 고려시대 광주의 대 호족이었던 왕규와 관계된 절터였을 것으로 추정해 오면서 백제시대에 건립된 절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의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대관에 백제시대의 절터일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하여 논란을 잠재운 곳이기도 하다.

다른 문헌에 동사라는 절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이 절에 대한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지만, 주변엔 이성산성을 비롯하여 동쪽으론 춘궁동 옛마을과 남한산성, 서쪽으로는 몽촌토성과 암사동선사주거지, 백제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미사동 선사주거지와 백제유구 등이 발굴되어 이곳 또한 한성백제 시기에 조성된 사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과 고려시대의 절터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간의 논쟁이 뜨거운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물터들의 발굴결과 금당지는 총54개로 추정되는 주춧돌 중 19개가 발견되어 정면 7칸(28.9m) 측면6칸(20.8m)에 이르는 기단부로 대형 건물터임이 밝혀졌다.

한편 금당지 안에서 장대석 일부가 유실되었지만 불상대좌의 기단부로 파악되는 팔각석열과 잡석다짐이 있는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한변의 길이가 2.1m 이고 지름이 5.1m에 달하는 규모로 중앙부에 큼직한 심초석이 놓여있는데, 가운데에 사리공으로 추정되는 둥근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으나 사리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발굴단에서는 이 유구를 두고 불상대좌였을 것으로 추정하나 일부 학자들은 팔각불상좌대가 팔각형 안에 심초석이 있고, 팔각주위에 원형이 둘려져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배치된 초석들이 동서27m로 정방형을 이루고 있어 이를 고구려의 금강사지 목탑지와 비교하여 백제의 목탑지였음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 아직 이 유구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금당지 주변의 남동쪽 축대부근에서는 소조나발이 발견되었는데, 크기가 큰 것으로 보아 금당에 모셨던 본존불상의 규모는 매우 큰 대형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의 다른 건물터들 또한 규모가 20m가 넘고 있어 매우 큰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노출된 금당(金堂)터와 불대좌(佛臺座, 팔각대좌석), 건물터 등 유구(遺構)의 상태로 보아 건축양식 또한 독특하여 한국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백제문화연구회에서 치미조각을 발견하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건축공학상 황룡사의 치미보다도 크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1993년 여름 가뭄 때 나타난 토기와 와편들로 인해 현재의 저수지 일원 전체가 동사지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돼 그 규모는 상당히 넓고 거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두 석탑의 동쪽 순환고속도변 언덕에 길게 형성된 건물지에서는 금당지 주변의 방형 주초석과는 달리 원형 초석들이 남아있는데, 지역적으로 다른 건물지들과 함께 조성된 사역으로 추정하는 이곳에서 1971년 병, 완, 화로, 향로, 접시, 발, 잔, 대야 등 200여점의 청동불구류들이 도굴된 뒤 국가귀속처리와 함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발굴을 통하여 출토된 유물은 대종을 이루는 기와를 비롯하여 전, 소조불상편과 소조나발, 토기 및 자기편, 철못 등이 있다.

특히 기와는 암막새와 수막새, 암키와와 수키와, 명문기와, 귀면와, 연목기와로 봉황무늬를 비롯한 연화문, 당초문, 넝쿨무늬 등 그 문양의 화려함이 돗보이며, 연꽃무늬 수막새는 5엽, 8엽, 10엽, 12엽등 다양하여 상당히 공을 들인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이 주변에서 기존의 추정과는 달리 그 년대가 시기적으로 앞선 기와편들이 다수 별견되는 점으로 보아 백제시대의 옛 절터일 가능성이 크다고 2011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대관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백제시대에 건립하여 고려시대에 오기 까지 계속 보수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하남지역은 옛 한성백제시기의 첫 수도인 위례성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하남시의회 의원별 질의/ 답변 정리 총평

보금자리 등 국책사업도 하남시 오염물량에서 부담
하남시, 인구 50만명 기준으로 받아 큰 부담 없을 것



오수봉 의장

오염총량제 관련

H구역은 서울이고 그 다음에 F하고 G는 경기도인데 지금 이게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개 구역이잖아요. H구역은 서울에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개는 경기도에서 기본을 하는데 기본계획안이 다 끝났잖아요.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승인을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내년 6월부터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구역에 따라서 유역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하남시 현안사업이 참 많은데요.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에 오염총량제 용량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국책사업이잖아요. 국책사업이면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남시 오염 총량에서 빼야 된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안 빠진 거죠?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나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하남시 개발사업 3분2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 세무 · 회계 교육, 하남시 특화사업 추진하자
여성발전기금으로 경력단절 여성 실질적 지원해야


이현심 부의장

여성능력개발 관련

지금 세무 · 회계 교육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갖는 의미가, 이전에는 우리 여성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들을 일거에 질적 비약을 이룬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바탕이 뭐냐면 제가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인데 항상 서면심의만 해요.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시 · 군의 사례들을 찾아보셔서 벤치마킹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과는 좀 다르게 여성발전기금이 말 그대로 여성발전기금으로 쓰여야 되는데…….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경력을 살려주고,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자는 말씀이에요.

전철 하남연장선 종착역은 창우초와 동일하이빌 사이
중앙선 팔당역과의 연결은 향후 제반 상황 검토해봐야~


윤재균 의원

지하철 노선연장 관련

역이 확정 됐습니까? 7월5일까지 주민 공람했죠? 우리가 2011년 4월 달에 BC가 1.02로 됐을 때 그때 역사하고 지금 새로 조정한 역사하고 조금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철도냐, 도시철도냐 갖고 논란이 많잖아요. 향후 광역철도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 하남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선을 붙여야 광역으로 명분이 생긴다는 것은 국토부 당시 과장이 이야기한 이야기에요.

지금 부영아파트 앞으로 끌어 들인 건데 중요한 것은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하남시청이 중심부에 있는데 시청역이 없다면 하남시의 상징성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남시로 봐서도, 시민들 입장에서도 거기로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원활하게, 수월하게 이용한다면 중앙선 팔당역하고 붙여 가지고 하남시가 사통팔달 이렇게 되게끔 하게 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11 하남시의회 의원별 질의/답변 정리 총평

활어센터 이전, LH는 적극적 하남시는 소극적
그동안 건물 허가 내줬던 평수 정도의 최소한은 지켜줘야



홍미라 의원

보금자리 관련, 화훼, 채소, 축산, 수산 등 이주대책

수산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실수요자 문제가 정리 됐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기타실수요자에 대해 수산물이 해당되는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수산물대책위원회에, 저희가 '이 기타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LH에서 공문으로 받아왔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곳이 LH공사죠? 그곳에서는 책임을 지고 공문까지 해 줬는데, 우리시에서는 확인조차 안 하고 국토해양부에…….

우리 시가 그동안 건물 허가를 내줬던 평수만큼, 최소한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만큼은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시의 도리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냐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기타 실수요자 얘기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이, 법률검토를 받으셨는지? 자문변호사가 그렇게 많아도 그것 한 번 돌려봤어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 생존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그런 자세로 가야 되요. 뭐 대단하게 센터를 건설해서 몇 층짜리 건물을, 돈도 없는 분들이 이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남시, 2012년 1월20일까지 열원시설 정확한 의미 규모 몰랐다
열원시설 협의 과정 등에 대해 시청 자체적으로 감사 착수


김승용 의원

열원시설 관련

LH공사와 대한도시가스에 요구해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09년 7월9일 미사보금자리 지구계획안 협의 시부터 2010년 8월까지 선동에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8일, LH공사에서 각 기관에 발송한 이 공문을 보면 풍산동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남시 도시개발과에서 2009년 7월9일부터, 지구계획안 협의 시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 도시개발과는 아무런 협의사항도 없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3월18일까지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부지매매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건축허가를 우리시로부터 받으려고 그러고요, 10월에는 공사착공을 하려고 그러고, 2014년 2월에 최초로 공급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저감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악영향을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루공원, 장례용품 원가도 모른 채 판매
업체 발주가격 평균액 산정 후 수수료만 챙긴 셈


방미숙 의원

마루공원 용품관련

마루공원 사용에 있어서 관외가 관내보다 50% 더 주고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관외 사용률이 1년에 몇 건정도 되죠? 40건 정도요? 장례용품 수수료가 몇 %에요?

제가 인근 서너 군데를 조사를 해 봤거든요. 주로 20~30%로 많으면 30%인데, 지금 38.9%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수수료가 우리 하남시가 높은 거잖아요? 그럼 입찰이 몇 군데서 됐어요?

향조각관을 250만원에 판매를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수료율이 얼마가 되냐고요.

수수료 제외가보다 원가자체가 훨씬 저렴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38.9%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시가 인근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외보다 관내가 50%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그만큼 저렴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반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비싼 것을.

팀장님 말씀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식사류도 46.7%고 음료수 같은 것은 거의 60%대가 많아요.

연말까지 중앙대 유치 진전 없으면 파기 가능성
중앙대, 인천은 캠퍼스건립 비용 대는데, 하남은 왜 안되나 배짱


황숙희 의원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 추진 현황

지금 중앙대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6월에 문서가 오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쪽에서 미리 하남시 의견은 이런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그쪽에서 어떻게 성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는 일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굳이 경기도에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굳이 중앙대학교를 유치하는데 갑1이 경기도지사라고 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3월 30일에 국무총리실에서 3차 사업조정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라고 하나요?

굳이 중앙대에 그렇게까지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면 우리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12 조례안 심사의결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이현심 의원 등 5명은 2012년 7월4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하남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했다.

조례안은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하남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성평등은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해 평등 평화 발전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성차별은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하남시의 책무로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등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하남시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했다.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서는 하남시장이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해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의무를 뒀으며 연도별 추진실적을 하남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성평등을 위해서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점검 및 평가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성평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심의를 한다.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1명)이 되고, 부위원장(1명)은 15명 이내의 위원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 · 경제 · 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3명 이내)뒀으며,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제3장 성평등촉진 정책에서는 공직과 경제활동 등의 참여촉진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여성 참여를 촉진해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 정수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노력하도록 했다.

시장은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마련 의무도 진다.

시장은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구매 촉진과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직장보육시설 확충 노력 △방과 후 아동보육 활성화 △육아휴직제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가족친화 제도 확산도 규정했다.

이밖에도 남성이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마련 의무도 시장에게 부여했다.

성차별과 성희롱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해 △직장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접수 처리 창구 운영 △연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도시공간 및 시설에 있어서도 여성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하남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성평등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해 제·개정 추진 법령 등에서의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의무도 부여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에게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5장은 실질적인 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이의 지도감독을 규정했고, 제6장 보칙은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덕풍3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2012. 04. 16.)에 따른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덕풍3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하남시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경기도에서 최저가로 재정의 건전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 인상안 (별표4)

종량제 봉투 · 납부필증 · 수거용기 · 스티커 가격

별표4

봉투용량	봉투규격 (가로×세로)	두께 (㎜)	색상	판매소 구입가격		판매가격		비 고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5리터	26×46.5	0.030	흰색(반투명)	92원	122원	100원	130원	일반용
	26×46.5	0.030	엷은하늘색	92원	122원	100원	130원	재사용
10리터	33×56.5	0.030	엷은 녹색	170원	225원	190원	250원	일반용
	36×53.5	0.025	엷은하늘색	170원	225원	190원	250원	재사용
20리터	42×69.5	0.035	엷은 녹색	322원	422원	350원	450원	일반용
	45×65.3	0.030	엷은하늘색	322원	422원	350원	450원	재사용
50리터	56×91.5	0.045	흰색(반투명)	800원	1,060원	870원	1,130원	일반용
	56×91.5	0.045	엷은 청색					공공용
100리터	71×113.5	0.055	흰색(반투명)	1,580원	2,090원	1,720원	2,230원	일반용
			엷은 청색					공공용

음식물수수료납부필증	음식물수수료납부필증규격	두 께 (㎜)	색상	판매소구입가격		음식물류수거용기	판매소구입가격
				2012년	2013년		
3리터용	22×39.5	0.020	빨강색	60원	80원	3리터	4,660
5리터용	26×46.5	0.020	황토색	92원	122원	5리터	4,960
10리터용	33×56.5	0.025	분홍색	170원	225원	10리터	8,180
20리터용	42×69.5	0.035	녹색	322원	422원	20리터	13,600

음식물수수료납부필증	음식물수수료납부필증규격	두 께 (㎜)	색상	판매가격		음식물류수거용기	판매가격
				2012년	2013년		
3리터용	22×39.5	0.020	빨강색	70원	90원	3리터	5,000
5리터용	26×46.5	0.020	황토색	100원	130원	5리터	5,300
10리터용	33×56.5	0.025	분홍색	190원	250원	10리터	8,800
20리터용	42×69.5	0.035	녹색	350원	450원	20리터	14,700

멀고도 험한 소비자, 전통시장, 대형마트간의 상생 | 오수봉 의장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던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장은 몇 차례에 걸친 관계자와의 간담회,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행령에 맞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하지만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조례를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강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판단, 시행여부를 침범한 것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조례의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수봉 의원은 7월 25일 정례회에서 관련 주례를 다시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9월 10일 본 사안에 대하여 본안소송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9월 21일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났으며, 본안 판결시까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점포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수봉 의장은 "최근 법원의 다양한 판결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 공부하며, 활동하다 | 이현심 의원



우리에게 하남시에서 자전거 타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하남시의회 이현심 부의장.

시민의 삶 곳곳을 볼 수 있기에 자전거를 선호하고, 도보를 선호한다는 이현심 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듯 하다.

하남여성회의 소모임인 희망교육모임에서 2년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이현심 부의장은 2주일에 한 번씩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희망교육모임은 학부모들로 구성된 소모임으로 아동교육, 심리상담, 여성분야, 아동발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 10월 5일에는 인권이라는 주제아래 행복추구권에 관한 진지한 토론회가 펼쳐지기도 하였다.

토론회에서 이현심 부의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마을, 하남을 만들기 위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 문턱 없는 밥집 같은 역할 분담처가 많아져야 가능하다"며, 저변 확대를 강조했다.

한편 하남여성회는 식량주권사업을 비롯, 성평등사업을 통한 강사양성, 교육지원, 시민 대중 강좌 등을 실시하여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가스 설치 주민과 함께 풀어 | 윤재균 의원



팔당대교 남단에 위치한 창우리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공사가 10월 22일 첫 삽을 떴다.

2008년 12월 전국 최초로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취약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취약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창우리를 필두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가스의 보급에 있어서 창우리 마을 주민들은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준비를 해 왔고, 주변 사유지의 사용승낙 문제와 더불어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긴 여정의 첫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하남시의 철저한 준비와 주민들의 합의된 한 목소리, 그리고 하남시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한 윤재군 의원의 노력이 머리를 맞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윤재군 의원은 "누구 하나가 잘 해서 일궈낸 결과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합심한 결과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며, "향후 어떠한 문제라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합의점을 찾고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며, 공치사를 돌렸다.

광주시 씨알여성회 초청, 지방자치시대 여성의 정치 참여 강연 | 홍미라 의원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이 지난 9월27일 광주시 씨알여성회 교육관에서 광주 여성연대가 주관한 2012년 여성의 눈으로 보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부제 : 양성평등 광주시를 위한 행감 모니터링)에서 '지방자치시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충남 청양이 고향인 홍미라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거쳐 시민후보로 출마하여 3선 의원을 지낸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며 2시간에 걸친 강연을 펼쳤다.

강연을 마친 홍미라 의원은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여성연대의 노고에 여성의 한 명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요구되는 만큼 역할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달라"며 주민들의 관심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2월 창립된 광주시 여성연대는 여성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해 씨알여성회, 광주여성회 등 회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6.2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여성관련 정책과 공약사항의 이행 정도를 점검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회의원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향상 방안이나 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질문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7월에는 의정지킴이를 발족시켜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 평등한 의정활동과 광주시의 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검단산~강일지구 운행 5번 마을버스 민원해소 방안 열려 | 김승용 의원



강일지구 입주 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5번 마을버스의 회차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시의회 김승용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서울시청 관계자와 하남시 관계자 등을 현장에서 함께 만나 5번 마을버스의 회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상일역 인근 사거리까지 1.2km 노선연장을 통하여 회차문제를 해결하여 상일역에서 논스톱으로 검단산까지 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년 초 5번 마을버스의 불법유턴에 대하여 인근 중학교 학생과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강동구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강동구청의 단속으로 한 때 운행중단사태까지 벌어졌다.

기존 하남시 안에 대하여 강동구가 아파트 사이길 운행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자. 현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서울시 관계자도 현장점검을 끝낸 후 "하남시에서 공식요청을 하면 관할구청과 인근학교, 버스회사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듣게 되었다.

5번 마을버스 민원 해결을 주도한 하남시 김승용 의원은 지난해에도 16번 버스가 황산 중앙정류장을 이용하게 하여 환승민원을 해결 한바 있다.

적십자 하남지구협회 쾌적한 조리장소 마련 | 방미숙 의원



대한적십자 하남지구협회(회장 문연자)가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지원사업 조리실이 개소식이 7월23일 열렸다.

매주 수요일 반찬을 만들어 관내 결연세대 64가구에 대하여 반찬배달 및 쌀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하남지구협회는 조리실이 없어 춘궁동 향교 인근에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컨테이너를 마련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컨테이너 조리실 사용에 있어 고온으로 인한 식품의 변질 우려와 겨울철에 물이 나오지 않아 반찬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시의회 방미숙 의원이 지난해부터 조리실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한 결과 지금의 조리실을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방 의원은 적십자 조리실 개소 외에도 지난해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마련,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센터 개소 등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덕풍시장에서 민생탐방을 통한 민심을 알아보다 | 황숙희 의원



배추가 단가가 맞지 않아 갈아엎었다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었지만 항상 추석 무렵은 과일과 채소가 비쌌고 더구나 올해는 태풍이 여러 개 지나갔기에 더욱 비싸리라 생각을 하고 채소가게에서 자리를 잡고 민생탐방을 시작했습니다.

값을 물어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값을 다른 가게와 비교 분석을 하시는 분들, 선뜻 물건을 구매 못하는시는 분들 모두 사야 하는 상황인 것은 확실한데 선뜻 사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이 저립니다. 그래도 좀 도움이 되 보려고 물건에 대한 지식도 없었지만 설명도 자세히 하면서 열심히 권해 보지만 그분들의 장바구니는 여전히 가볍습니다.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고 멀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정담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가족간의 우애를 다지기도 하며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경제가 어렵긴 어렵나 봐요"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는 분들도 모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기를 바랍니다.

하남시시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 서

대규모사업장 관계자 초청, 주민고용 · 관내업체 참여 협조



하남시의회(의장 오수봉)가 지난해 1월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정, 지난 7월 LH공사에 보금자리사업 지역주민 고용 · 업체 확대를 요청한데 9월2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대규모사업장 관계자와 '지역주민 고용과 업체 참여, 지역에서 생산 · 판매되는 건축자재의 사용 확대협조'를 요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하남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사업 참여와 주민 고용 증대, 지역에서 생산 · 판매되는 건축자재의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남시에서는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 7개 공사현장을 비롯,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환경기초시설현대화 공사 등 6곳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간담회에서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역주민의 고용과 관내업체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를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향후 2~3년간 공사가 진행되면 일정부분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도시미관이 저해될 것이 예상되므로 오염방지 및 미관향상을 위해 사업장별로 공사장 주변 펜스에 시 상징 사진과 그림 등의 게시를 검토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자리를 옮겨 열린 오찬장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업체별로 수행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가 시 발전을 앞당기는 현안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2년 이모저모 활동사진



▲ 여수 엑스포 파노라마



시청을지훈련격려



소방서 을지훈련격려



▲ 하남시의회 탐방



경찰서 을지훈련격려

하남시의회, 6대 들어 주요의안 166건 의결

출입기자 간담회 통해 의정활동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역할 당부



제6대 하남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출범을 맞아 9월11일 하남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향후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 주민을 위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제6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에 따른 향후 의정운영 방향을 설명했고,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듣는 여론에 대한 청취시간도 있었다.

제6대 하남시의회(2010년 7월~ 2012년 8월31일)는 △임시회 17회(89일) △정례회 5회(98일) 포함 모두 22회(187일)의 회기를 가졌다.

같은 기간 특별위원회는 △조례 12건 △예산결산 13건 △사무감사 3건 등 모두 28건의 특위를 운영했다.

주요 의안별 처리건수는 모두 166건으로 △조례안 141건 △예산 · 결산안 17건 △동의 · 승인안 1건 △중요재산 4건 △기타 3건이었다.

민원접수안내

접수처 : 우)465-701 경기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의회 **전화** : 031)793-2363

발행인 : 오수봉 **편집인** : 최병만 **발행처** : 하남시의회

■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제출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민원내용에는 민원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하남시)사무의 범위 내의 것이라야 함